

“작품에 광주 정체성 담고 시즌제 공연 등 시도 필요”

최철 광주시립오페라단 신임 예술 감독

“7월 ‘신데렐라’·9월 ‘토스카’·10월 ‘라 트라비아타’ 등 기획작품 올인 5·18, 희생·연대로 승화돼야 경쟁력...오페라하우스 건립 힘 보낼것”

“얼마 전 대구 오페라하우스에 방문해 ‘안드레아 쉐니에’를 감상했는데, 광주에서 원정 관람을 온 관객들이 100여 명에 달해 놀랐습니다. 광주에서도 그동안 가지 못한 오페라가 제작됐지만 지속성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은 경우는 찾아보기 드문 것 같아요. 푸치니의 ‘라보엠’, 시립합창단의 ‘호두까기인형’, ‘양림겨울축제’를 결합해 ‘겨울 오페라 축제’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최근 광주시립오페라단 연습실에서 얼마 전 취임한 최철 신임 예술감독을 만났다. 그와 인터뷰를 하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매년 펼쳐지는 ‘시몬 보카네그라’처럼 광주를 대표하는 시즌제 브랜드 오페라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얼핏 들었다.

공개모집을 통해 최 감독은 오랫동안 공석중이던 오페라단 예술감독을 맡게 됐다. 임기는 오는 26년 6월까지 2년.

조선대 음악학과 성악 전공, 이탈리아 마스카니 국립음악원 등을 졸업한 그는 이탈리아 로마네스

코 오페라단을 연출했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민오케스트라(예술감독) 등을 맡았다. 조선대 대학원 문화학과 객원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최 감독은 “올해에는 이미 기획된 작품을 제작하는 데 진력할 예정이다”며 “7월에는 로시니 작 ‘신데렐라’, 9월에는 푸치니 탄생 100주년 오페라 ‘토스카’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10·11월에는 광주와 대구의 달빛동맹 프로젝트로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연말에는 ‘월드 뮤직 페스티벌’을 상연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중 인상적인 부분은 ‘예술 질료로서의 광주’를 대하는 시각이다. 그는 “광주 내부의 시선으로 볼 때는 우리가 펼쳐온 ‘5월 공연’들이 옳았겠지만, 한편으로 외부의 시선은 다를 수 있다”며 “5·18이라는 소재가 희생, 연대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로 승화돼야 ‘5월 오페라’가 전국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예를 들면 오페라 ‘토스카-광주’를 만든다면 여주인공 토스카는 광주에서 트로트 오디션을 보는 송가인 같은 캐릭 터나 전대 성악과 출신의 소프라노로 설정해 볼 수 있고, 남자 주인공 공 ‘카바라도시’는 전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미대생으로 구상할 수 있다”며 “원작과 같은 음악을 사용해 감동을 주되, ‘광주 바깥’에서도 쉽게 수용될 수 있는 레퍼토리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시립합창단원 100여 명과 오페라단이 함께 공연했던 서울 사례는 참조할 만하다. 광주에서도 시민 오페라단 배우들을 선발해 월드클래식 공연에 출연시키고 지하철역과 같은 공간에서 공연을 펼치는 기획을 구상 중이다. 아울러 단막 공연에도 ‘광주만의 아이덴티티를 더 녹이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밝혔다.

최 감독은 “용어 박용철 시인처럼 광주를 대표하는 인적 자원의 삶을 극화하는 것도 흥미로운 것 같다”며 “18세기 유행했던 희극적이고 대중적인 오페라인 ‘오페라 부파’ 요소를 결합한다면 의미 있는 작품이 탄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푸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시모네 역을 맡고 있는 최 감독의 모습. <최철 제공>



최철 신임 예술감독

나부코와 한국의 ‘3·1운동’을 접목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는 후문이다.

그는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광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원주-인천-부산 등에도 후속 오페라하우스가 생길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호남권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최 감독은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오페라하우스건립협의회’(가칭)를 구축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위해서는 좋은 공연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것이 선결 요건”이라며 “한 번 실현하고 작품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닌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시민오케스트라 등과 협약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오페라 공연’ 등을 추진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시립합창단원 100여 명과 오페라단이 함께 공연했던 서울 사례는 참조할 만하다. 광주에서도 시민 오페라단 배우들을 선발해 월드클래식 공연에 출연시키고 지하철역과 같은 공간에서 공연을 펼치는 기획을 구상 중이다. 아울러 단막 공연에도 ‘광주만의 아이덴티티를 더 녹이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밝혔다.

최 감독은 “용어 박용철 시인처럼 광주를 대표하는 인적 자원의 삶을 극화하는 것도 흥미로운 것 같다”며 “18세기 유행했던 희극적이고 대중적인 오페라인 ‘오페라 부파’ 요소를 결합한다면 의미 있는 작품이 탄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우리 마을 ‘숨겨진 이야기’ 찾습니다

서구문화원, 10월까지 지역 문화유산 이야기 공모전

광주 서구에는 역사를 비롯해 인물, 지명, 자연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산재한다. 문화유산에는 각 지역에서 전해내려 오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깃들여 있다. 이를 스토리텔링하는 것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견인한다. 서구문화원은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련 마을 이야

기 공모전을 진행한다. 대학생과 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참가 희망자는 문화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응모작품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제14회 빛고을문예백일장 ‘서구 마을이야기’ 공모전은 서구 관내의 다양한 이야기

원형을 기록화하고 콘텐츠화해 시민들과 공유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기획작업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일부 내용은 창작 이야기를 추가해도 된다. 또한 기존에 공개된 전체 내용은 해당되지 않으며 일부는 각색해 풀어나갈 콘텐츠는 가능하다. 결과는 오는 11월 15일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 및 개별적 통보할 예정이다. 시상은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에게 상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서구문화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가수 현철 별세

‘봉선화 연정’ 남기고 천상으로

1966년 데뷔 후 오랜 무명 80~90년대 트로트 전성기 선두 ‘싫다 싫어’·‘사랑의 이름표’ 등 주옥 같은 곡 남겨...수년간 투병



‘봉선화 연정’ 등으로 1980~90년대 큰 인기를 누린 트로트 가수 현철(본명 강상수·사진)이 15일 오후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과거 현철의 매니저를 지낸 작곡가 정원수는 16일 “현철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1942년생인 고인은 고향인 부산에서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가센 부산 사투리로 TV 프로그램에서 입담을 자랑하는 모습은 지금도 많은 시청자에게 강한 인상으로 남아 있다.

현철은 1966년 ‘태현철’이라는 이름으로 첫 음반을 내며 가요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세간에는 1969년에 데뷔했다고 알려졌지만, 3년 앞선 1966년 대도 레코드사에서 발매한 첫 음반 ‘무정한 그대’가 있다.

박성서 대중음악평론가는 “현철은 1966년 데뷔 이후 1967년과 1968년에도 잇따라 음반을 발표하며 활동했지만 이렇다 할 히트곡이 없이 무명 가수로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현철은 그러던 중 1979년 작곡가 박성훈과 ‘발레들’이라는 이름으로 팝송 ‘아이 워즈 메이드 포 댄싱’(I Was Made For Dancing)을 변안한 ‘다함께 춤을’을 발표했다.

이후 ‘현철과 발레들’로 이름을 바꿔 활동하며 1980년대 들어 비로소 ‘앞으나 서나 당신 생각’과 ‘사랑은 나비인가봐’ 등의 히트곡을 내는데 성공했다.

현철은 1987년 솔로로 전향해 ‘백년해로’, ‘사랑의 가방을 짊어지고’ 등의 노래로 정상급 가수로 도약했다.

특히 그가 1988년 발표한 ‘봉선화 연정’은 “손대면 똑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 봉선화라 부르리 / 더 이상 잡지 못할 그리움을 / 가슴 깊이 묻어두고”라는 절절한 가사로 큰 인기를 끌었다.

현철은 이 ‘봉선화 연정’으로 1989년 KBS ‘가요대상’ 대상을 품에 안았으며 이듬해인 1990년에도 ‘싫다 싫어’의 히트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전성기를 누렸다.

‘싫다 싫어’는 귀에 맴도는 중독적인 멜로디와 ‘싫다 싫어 꿈도 사랑도~ / 싫다 싫어 생각을 말자~’라는 가사로 30년이 지나도록 지금껏 애창되는 그의 대표곡 가운데 하나다.

현철은 1989년 ‘가요대상’ 대상을 받고서 감격에 겨워 열한 뒤 “정말 팬 여러분 고맙습니다”라며 “한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한 달만 더 사셨으면 좋았을걸. 가요계 생활 20년

인데, 살아생전 제가 불효해서 아버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소감을 말해 시청자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다.

그는 1990년대 이후로도 ‘사랑의 이름표’, ‘아미세’ 등의 노래로 승승장구했다.

현철이 1998년 발표한 ‘사랑의 이름표’는 구성진 멜로디와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면 / 확실하게 붙잡아라’는 기억에 남는 가사로 크게 히트했다.

현철은 2010년대까지 신곡을 내며 활동했으나 2018년 KBS ‘가요무대’에 출연해 히트곡 ‘봉선화 연정’을 부르는 도중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 팬들의 걱정을 샀다.

현철은 수년 전 경주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신경 손상으로 건강이 악화해 오랜 기간 투병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때문에 방송인 송해와 가수 현미의 장례식에도 함께 하지 못했다.

박성서 대중음악평론가는 “평소 성격이 느긋하고 집념이 강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 그의 성공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고인이 활동하던 1980~90년대는 트로트가 ‘성인가요’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구분되던 시기인데, 그런 풍토에서도 트로트의 명맥을 잇는데 누구보다도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송애경씨와 1남 1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18일 오전 8시 20분.

/연합뉴스

환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병원 부모님을 모셔도 좋은 “동행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치료실 운영
중풍재활 / 인지기재활 수술후 재활

요양병동 운영
일반요양 / 전담간병실운영 (24시간 간병인 상주)

한의 집중치료
침·뜸·부항·약침, 물리요법 등의 치료실 운영

의학, 한의학 협진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 수술 후 재활치료 | 근골격계 통증치료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가 병원1층에서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작업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내 생활공유
환우분의 근황 및 일상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 인증기간 | 2020.10.19 ~ 2024.10.18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 062) 720-2000